국내 최초 다도해 '스카이 투어' 날개 접다

여수 신한에어 3개월째 운항 중단 승객 정체에 적자 누적…재개 불투명

여수 인근 다도해 항공관광 상품인 '스 카이 투어'가 재정 탓에 지난해 11월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스카이 투어'는 수려한 다도해 풍광을 경비행기로 하늘에서 둘러 작부터 관심을 모았었다.

14일 전남도와 스카이투어 운용 회사인 신한에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항공청에 여수공항 기점 스카이투어 휴업을 신고했

도~백야도등대~향일암~여수신항~여수공 항의 주간 노선과 여수공항~순천~광양제 철소~여수 신항~여수공항 야간노선으로 보는 국내 첫 항공 관광상품으로 투어 시 나눠 매일 10회 운항할 예정이었다.다. 하 지만, 야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주간만 5~6회 운항하는 데 그쳤다.

> 지난 2017년 2월 취항 직후 일주일간 36회 운항해 승객 288명이 이용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10인승 소형 항공

기 1대로 항공관광 상품을 지속해서 운영 하기 힘든 데다, 승객 수요도 정체되면서 누적적자가 쌓였고 결국 운항을 포기한 것 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 보조도 취항 당 신한에어는 애초 여수공항~모개도~사 시 전남도에서 제공한 1억원 외에는 별다 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 신한에어는 애초 여수공항 상품과 함께 기획했던 야간 관광과 무안공항을 기점으 로 한 팔금도~장산도 노선을 포함한 3개 코스 운항도 여수공항 상품을 활성화하지 못하면서 모두 중단됐다. 이에 따라, 스카 이투어는 2개월이 넘도록 운항 중단됐으 나 재개 여부에 대해 회사 측은 부정적이

신한에어 관계자는 "관광객이 늘어야 조종사도 추가 채용하고 비행기도 더 투 입할 수 있는데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적자만 쌓였다"며 "지금은 휴업상태 지만 운항 재개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

한편, 신한에어 스카이투어의 항공기 는 미국 세스나사에서 제작한 그랜드 카 라반 208B로 항속거리 1982km, 평균 시 속 300km로 14인승이지만 '투어'를 위 해 10인승으로 개조해 모든 좌석을 VIP 시트로 구성했다. 1인 요금은 5만9000원 이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다기능 항만 개발 386억 투입

완도항 등 9개 부두 진도항 터미널 신축 등

전남도는 올해 완도항 등 전남지역 9개 항만의 부두 및 터미널 신축 등에 국비 386억원을 투입해 다기능 항만으로 개발 한다고 14일 밝혔다. 9개 항만은 완도항, 홍도항, 송공항, 진도항, 녹동신항, 나로 도항, 화흥포항, 땅끝항, 신마항이다.

완도항의 경우 2015년부터 추진한 해 경 전용부두 축조공사가 오는 4월 공사 가 완료된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행 사장 전면 해상에 500m 길이의 중앙방 파제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 기에 착수해 선박의 안전한 접안은 물론 대피항만으로서 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

홍도항은 지난해 150m 길이의 동방파 제 축조공사가 완료돼 여객선 접안이 용 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60

m 길이의 남방파제 공사를 착공해 섬 관 광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2020년까지 14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진도항 2 단계 건설공사는 그동안 부두 축조와 일 부 항로 준설이 이뤄졌다. 올해는 부두 배면부에 토사 매립 및 항로 준설을 마무 리해 202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땅끝항과 나로도항은 기능이 약화된 물 량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설 계 용역을 추진중이다. 이 용역이 올 상반 기에 완료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 어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객선 터미널이 없어 이용자들 이 불편을 겪었던 진도항과 땅끝항, 송공 항의 경우 실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가 마 무리되는 대로 신축공사에 들어갈 예정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첨단생물 의학 개발

47건 유치 740억 수주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원장 황재연) 은 지난해 첨단 생물·의약 분야 연구개발(R &D) 47건의 정부 과제사업을 유치하는 등 질적·양적 성장을 일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사업 규모나 질적인 면 에서 큰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수주 건수는 전년(39건)보다 21%늘어났 으며, 총 사업비는 738억 원에 달했다. 사업 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1개 사업당 사업비도 전년(4억 5000만 원)보다 3배 넘 게 늘어난 15억 700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남이 유치한 대표적 생물・의약 R&D 국가과제는 식품산업연구센터의 전 남축산농가 악취저감 기술개발사업 12억 원,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쪼쪼가무시 백신 개발사업 24억원 등이다. 또한, 해양바이 오연구센터의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51억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의 유자씨 활 용 화장품소재연구사업 5억원 등도 추진

한편, 지난 2002년 설립된 전남생물산 업진흥원은 지금까지 총 391건, 1318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482건 의 특허를 창출하고, 1005개의 기업 제품 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4047억원의 매출 증대와 3154명의 고용창출을 이뤄 지역 산 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자원을 소재로 한 연구를 통해 울금, 비파, 황칠, 멀꿀 등 전 남 특산자원 290여종에 대한 기능성을 밝 히고 기업에 40여 건의 기술을 이전해 지 역 농어가 소득증대 확대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재연 원장은 "앞으로 기업 수요에 맞 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통해 전남 생 물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생 물・의약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새내기 소방관 실습훈련

14일 오전 광주 북부소방서에서 새내기 소방관들이 실습 훈련을 받고 있다. 광주소방학교 신 임소방공무원과정 교육생 6명은 소방서 현장배치 전 실무능력 습득을 위한 주 40시간 동안 선

배 소방관들과 함께 각종 현장에 출동한다.

민주당 전남 3개 지역위원장 공모 19명 신청 6.3대1

현재 공석인 더불어민주당 20개 지역위 원장 후보 공모에 총 71명이 신청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14일 집 계됐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3개 지역위원 장 공모에는 모두 19명이 신청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6.3대 1의 경쟁률을 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여수 시 갑 위원장에는 6명이, 여수 을 위원장에 는 5명, 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장에는 8 명이 공모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 갑 위원장 공모에는 김유화(여・ 54) 전 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상임대표, 김점유(56)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 위원, 이신남(49)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

정관, 주철현(60) 전 여수시장, 한정우 (50) 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 직무대 행, 한현석(49) 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수 을 위원장에는 권세도(59) 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빈(67) 전 여수시 의원, 김형곤(65) 전 전남도의원, 박완규(55) 민주당 부대변인, 정기명 (56) 전 19대 대선 여수을 선대위원장 등 5명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것 으로 전망된다.

광양·곡성·구레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김 재휴(68) 전 지역위 부위원장, 김종대 (69) 전남도당 부위원장, 박근표(58) 전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YTN 시청자센터장, 박상옥(69) 광양버 스터미널 대표, 서동용(55) 민주당 정책 위 부의장, 서종식(60) 변호사, 안준노 (58)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이용재(57) 전남도의회 의장 등 8명이 응 모해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전남지역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높은 경 쟁률을 보인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높은 정당 지지율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민 주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소병훈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부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특위는 오늘부터 공정한 심사를 벌여 적 임의 지역위원장을 선정하겠다"고 말했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도시공사-호반 '어등산개발' 실무협상

레지던스 운영 등 조율

광주도시공사가 광주 어등산 관광단 지 조성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사 업자 호반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이달 말 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일부 이견을 조율

광주도시공사는 14일 오후 호반 컨소 시엄과 제9차 실무협상을 갖고 현안을 협의했다. 쟁점이 된 1500실 규모의 레 지던스 호텔 사업에 대해 도시공사는 주 택 임대사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는만 큼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협상안에 명시하는 방안 을 추진중이다. 레지던스 호텔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 거시설이다. 이와 함께 일반 분양된 레지 던스 호텔이 편법 운영될 수도 있는 만큼 호반 컨소시엄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를 맡기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도시공사는 어등산 관광단지를 운영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기부하는 방안이나 워터파크와 콘도 등 이 포함된 기존 제안서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방안 등 도 이날 실무협상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날 제안에 대한 호반 컨소시엄 의 답변을 받으면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 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 이다. 최종 협상안이 나오면 법률 자문,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달 내 실시협약 을 체결하게 된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41만 6000㎡ 부지에 인공호수, 워터파크, 아 트센터 등 휴양문화시설, 그리고 특급호 텔과 콘도,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을 비롯 해 골프연습장과 체육·오락시설, 창업지 원센터,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민단체, 민간공원 2단계 공익감사 청구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우선협상대상 자가 교체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 시의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 오는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9개 환경단체는 14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 등 과정에서 원칙과 합의, 일관성을 상실한 시 행정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공원 사업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 반으로 한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하지만 최근 시의 특정 감사와 후속 조치는 원칙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였다"고 지

특히, 이들은 "기밀문서인 제안서 평 가표 유출 경위와 책임자를 투명하게 밝 혀야 한다"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의 배경이 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 라"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학주세요!

